

“충간소음방지신발 개발 창업…취업고민 끝냈죠”

2016 희망을 쓴다 ❸ 청년창업가 이경태 Etum 대표

스펙 쌓으려 교내 공모전 참가했다 대상 받고 창업의 길 내달 첫 출시…“청년들에 여러 길 있다는 것 알려주고파”

충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다툼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광주지법은 충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주민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이 시끄럽다며 위층에 쫓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거칠게 항의하자 화가 나 먹살을 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범원은 자신보다 16살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충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신발이 곧 출시된다. 광주의 한 청년 창업가에 의해서다. 주인공은 이경태(26·사진) ‘Etum(에툼)’ 대표다.

이 대표는 자신도 충간소음의 피해자라고 했다. 아파트에 살았는데 위층에서 너무 뛰어서 주기도 몇 차례 쳤는데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이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충간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충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온 집안에 매트 깔아는데 이 매트들 신발에 깔면 어떻게? 가격 면에서나 공간활용 면에서 훨씬 이득일텐데….

이 아이디어는 교내 공모전에서 그에게 대상을 안겨줬다. 그리고 그를 창업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당시 광주대 항공서비스학과 3학년이었던 이 대표는 “승무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펙이 필요했고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가게 됐다”며 “뜻하지 않게 대상을 거머쥐었고,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며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나와 놀랐다”고 말했다. 이후 공모전 수상자들과 함께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며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Etum을 창업한 그는 ‘충간소음방지용 신발’의 성공을 자신했다. “우리나라 주택문화는 집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 캠페인’처럼 아파트에서 이웃간 매너로 ‘신발 신는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키면 됩니다.”

충간소음방지 신발은 다음달 출시된다. 3월부터는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1억원이다.

창업까지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 도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어렵다고 모든 게 힘든 것이 아니고, 쉽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어렵다·힘들다는 고정관념을 먼저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전을 안 해본 사람과 해본 사람은 차이가 있다. 안 되더라도 해보는 게 좋다. 하다보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는

재미도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두에게 창업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진로를 결정할 때 취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업의 길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회사명 ‘Etum’은 ‘음소거’라는 뜻의 ‘MUTE’를 뒤집은 단어로 ‘소리를 줄인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혹자는 ‘으뜸’이라고 읽어, ‘으뜸 회사’로 키우겠다는 소망도 담았다고 했다.

“아이디어 제조회사로 키우는 게 꿈입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 해 실현하는 것이죠. 충간소음방지용 신발은 그 첫번째 아이টে이고, 제2·제3의 아이디어를 상품화 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표의 꿈이다.

/글·사진=박정욱기자 jwpark@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35

달출 04:41
달짐 15:22

내일은 눈소식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1/5	보성	구름많음	-3/5
목포	구름많음	0/4	순천	구름많음	0/6
여수	구름많음	1/6	영광	구름많음	-1/4
나주	구름많음	-3/5	진도	구름많음	1/5
완도	구름많음	1/5	전주	구름많음	-3/3
구례	구름많음	-4/5	군산	구름많음	-3/3
강진	구름많음	-1/5	남원	구름많음	-3/3
해남	구름많음	-1/5	축산도	구름많음	3/5
장성	구름많음	-3/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부	면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5~3.0
전남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면바다(동)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제주	면바다(서)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생황지수

체감온도	관심
동파	낮음
뇌졸중	높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2:24	05:10
	00:00	18:02
여수	07:41	00:47
	19:28	13:44

◇주간 날씨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2/4	-2/4	-2/6	-3/3	-3/4	-2/4	-1/4

지역 대학들 등록금 인상 냉가슴

정부 지원사업 불이익 방지에 동결 분위기 지배적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고 수년 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도 정작 등록금 인상에 따른 ‘득’보다 ‘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밝힌 ‘대학 등록금 인상을 산정방법’에 따르면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1.7% 이하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고등교육법(11조)을 근거로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를 올해 인상한도로 정했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지난해 2.4%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론상으로는 최대 한도(1.7%)까지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역 대학들 안팎에서는 사실상 동결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당장,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선정 조건에 맞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부 지원 사업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대학 특성화 사업(CKS

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등을 추진할 때도 패널티를 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게 대학가 분석이다. 재정난에 봉착한 지방대학의 경우 ‘가뭄의 단비’ 같은 정부 지원금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내 반발도 고려하면 1.7% 올리느니 차라리 동결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게 대학가의 판단이다.

조선이공대가 지난 2011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6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남대도 이달 말 등록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동결 또는 인하’ 라는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남대는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동결 또는 인하를 선택했다.

2012년부터 등록금 인하나 동결을 해온 조선대도 동결하는 방향이 우세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광주대도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하해온 만큼 올리는 데 부정적이고 호남대도 2009년부터 인하해온 등록금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올릴 리 만무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신대도 등록금 인상 카드 대신, 예산 절감 방안을 짜내는 방향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중업원 사망’ 영장 반려

검찰, 경찰에 보강수사 지시

‘여수 유흥주점 여중업원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업주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검찰이 유흥주점 업주 박모(여·42)씨의 폭행으로 인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응급처치를 담당했던 의사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김정민기자kki@

무등산CC 법정관리 신청

동광레저개발이 운영하는 화순의 무등산컨트리클럽(CC)이 400억원대 회원권 반환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무등산CC를 운영하는 동광레저개발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6일 오전 동광레저개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현장검증을 한 뒤 이달 중순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24년간의 외침 6일 광주 여성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광주시청 시민숲에 있는 평화의 소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원천무효화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위안부 굴욕합의 무효”…전국 동시다발 수요시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수요시위’가 6일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개최됐다. 이날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해온 수요집회가 24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광주지역 여성단체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85) 할머니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시민 숲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집회를 열고, 협상의 원천무효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한일외교장관회담을 거쳐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일본

정부와 군대의 책임을 외면하고, 불가역적 협상임을 내세워 일본 정부에 영원히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 협상”이라며 “일본 언론은 소녀상 철거를 하지 않으면 10억 엔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하며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KTX 5분거리

광주시청 10분거리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무안공항 원할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